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 어휘의 양상 및 문제점*

-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신 민 철**

目 次

1. 머리말
 2. 교과서별 기본어휘 반영비율
 3. 교육용 기본어휘의 문제점
 - 3.1 교과서 미사용 어휘 등
 - 3.2 기본어휘의 품사별 구성
 - 3.3 기본어휘의 어종별 구성
 4. 개선방안
 5. 맺음말
-
-

1. 머리말

외국어로서 일본어 교육의 주된 목표는 일본어에 의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등학교 일본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중점을 두기 시작한 것은 제6차 교육과정부터이며, 현행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의 이해와 상황에 맞는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 이전까지의 일본어 교육은 주입식 문법 학습 중심의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 이 논문은 2006년도 한남대학교 교비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조교수 일본어학

어휘적 측면에서 보면 제4차 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 일본어 교육용 기본 어휘를 선정하기 시작하여 현행의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고 있는데, 교과서를 제작할 때에는 이 기본어휘를 중심으로 사용어휘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교과서의 기본어휘 반영비율을 보게 되면 교과서별로 기본어휘로 선정되지 않은 단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기본어휘 중에는 교과서에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등 기본어휘가 고빈도어(高頻度語)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일본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 교육용 기본어휘¹⁾가 각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조사, 기본어휘와 실제 어휘조사 자료의 품사별, 어종(語種)별 구성의 비교²⁾ 등을 통해 기본어휘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교과서별 기본어휘 반영비율

교육인적자원부의 검정심사에 합격한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로는 총 12종이 있으나, 그 중 I과 II가 모두 출판된 것은 <표1>의 6종 교과서이다. I만으로는 고등학교 교과서 어휘 전체를 망라할 수 없으므로 기본어휘의 반영비율은 <표1>의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교과서의 기본어휘 반영비율을 보기 위한 자료로서는 각 교과서의 색인을 이용했으며, 색인의 표제어 중 기본어휘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만 일치로 보고, ‘あつというまに’ ‘~かもしれない’처럼 일부만 일치하는 것은 불일치로 처리했다³⁾.

1) 이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어휘」라 부르기로 한다.

2) 田中章夫(2002, pp.53-57)와 角川書店의 『図説日本語』(1982, pp.60-80)에는 다양한 어휘자료의 품사별, 어종별 구성과 그 성격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을 참고로 했을 경우 기본도가 높은 단어군(單語群)도 품사별, 어종별 구성에 있어서 나름대로 경향성(傾向性)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3) 이것은 교과서간 표제어 제시 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인데, 이와 같은 예는 진명출판사와 천재교육의 교과서에 약간 보일 뿐이므로 통계수치 및 분석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1> I 과 II가 모두 출판되어 있는 교과서 목록

교과서명	저 자	출 판 사
일본어 I · II	이봉희 · 김남익	교학사
일본어 I · II	김숙자 · 어기룡 · 이경수 · 사이토 아사코	대한교과서
일본어 I · II	한미경 · 津崎浩一 · 조성범 · 이영환	블랙박스
일본어 I · II	김효자 · 박재환 · 정용기	지학사
일본어 I · II	유길동 · 여선구 · 조문희 · 가이자와 도시코	진명출판사
일본어 I · II	양순혜 · 이원복 · 위혜숙 · 이향진	천재교육

(출판사의 가나다순)

1997년 교육부 고시 『외국어과 교육 과정(II)』의 「일본어 I,II」를 보면 일본어 I에서는 기본어휘를 중심으로 500낱말 내외, 일본어II에서는 기본어휘를 중심으로 ‘일본어 I’에서 이수한 어휘를 포함하여 900낱말 내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표1>의 각 교과서에 어느 정도의 기본어휘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교과서별 기본어휘 반영비율

교과서	총 표제어 수	기본어휘	기본어휘 반영비율
교학	998	677	67.8
대한	900	675	75.0
블랙	958	727	75.9
지학	976	703	72.0
진명	997	649	65.1
천재	992	693	69.9

<표2>를 보면, 교학사의 교과서가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한교과서의 교과서가 단어를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과 기본어휘 반영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많을수록 기본어휘 반영비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70%대 전후의 기본어휘 반영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기본어휘 이외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비율도 결코 낮다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을 통해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용 기본어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3. 교육용 기본어휘의 문제점

3.1 교과서 미사용 어휘 등

총 832語가 선정되어 있는 기본어휘 중 상기의 6종 교과서에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단어는 아래에 보이는 13語이다

うら くるしい こい<濃> そこ(底) たす ち(血) つく(就) と(戸) ぬう は(葉)
はし<端> ひ(灯) め(芽)⁴⁾

일본 国立国語研究所 『日本語教育基本語彙七種比較対照表』를 보면 ‘つく(就)’는 ‘つく(付·着·就)’로 실려 있기 때문에 ‘つく(就)’에 대해서만 알 수 없으며 ‘ひ(灯)’는 실려 있지 않지만, ‘たす’는 1종, ‘め(芽)’는 3종, ‘うら, ぬう’는 4종, ‘くるしい, こい<濃>, そこ(底), ち(血), と(戸), はし<端>’는 5종, ‘は(葉)’는 6종의 자료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것만 보았을 경우 ‘つく(就), ひ(灯), たす’ 이외는 어느 정도 기본도가 높은 단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고등학교 교육용 기본어휘로서 적절한가 했을 때 ‘め(芽), ぬう, はし<端>’ 등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편 교과서에는 사용되고 있으면서 기본어휘로 선정되지 않은 단어 중에는 고유명사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あつめる, いちばん, うつる, かなしい, ぜんぶ, だいじだ, たすかる, ときどき, ひとり, ふゆやすみ, もしもし’ 등과 같은 기본도가 높은 단어가 기본어휘로 선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본다.

먼저 ‘あつめる, うつる, たすかる’에 대응하는 자동사와 타동사인 ‘あつまる, うつつ(写), たすける’는 기본어휘로 선정되어 있으며, ‘かなしい’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기본어휘에 들어 있는 ‘うれしい, さびしい, たのしい’ 등과 반의(反意) 또는 유의(類義)의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수(數)와 관련이 있는 ‘いち, ひとつ, ついたち’ 등과 ‘なつやすみ’는 기본어휘로 선정되어 있는데, 이들과 관련이 깊은 ‘ひとり, ふゆやすみ’는 기본어휘로 선정되지 않았다.

4) 기본어휘에서는 의미 변별을 위하여 < >와 () 속에 한자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어과 교육 과정(Ⅱ)』 「일본어 I, Ⅱ」는 교과서에서 사용 가능한 한자로서 표기용 한자 733자를 제시하고 있는데, < > 안에 들어 있는 한자는 표기용 한자에 없는 한자이다.

그런데 이들 단어는 어느 한 쪽이 중요하고 다른 쪽은 중요하지 않은 성질의 것이 아니고, 중요도의 면에서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한 쪽이 기본어휘로 선정되면 다른 쪽도 기본어휘로 선정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미의 결락(缺落)을 보이는 것도 기본어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尹岡丘·禹有貞(2000)과 李庸伯(2006)도 지적하고 있듯이 제7차 교육과정 기본어휘에는 시대에 맞지 않는 ‘ポケベル, ワープロ’와 같은 단어도 수록되어 있다.

3.2 기본어휘의 품사별 구성

기본어휘의 표제어 제시 방법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으므로, 품사별 구성과 어종별 구성을 보기에 앞서 몇 가지 전제를 하고자 한다.

기본어휘에는 ‘か, が, かも, から, くらい/ぐらい, けど/けれど, し, しか, だけ, たら, たり/だり, で, て/で, でも, ても/でも, と, ながら, など, に, ね, の, ので, のに, は, ば, へ, ほど, まで, も, や, よ, を’와 같은 조사, ‘う/よう, させる/せる, そうだ, た, だ/です/でしょう, たい, たがる, ない, ます, みたいだ, ようだ, られる/れる’와 같은 조동사,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おはよう(ございます),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おやすみ(なさい), こんにちは, こんばんは, さようなら/さよなら, すみません’과 같은 인사표현 등도 수록되어 있는데, 일본어에 있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 조동사는 그 수(數)가 한정되어 있으며 필수항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본어휘에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사표현도 대부분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기본어휘에서 다시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 밖에 기본어휘에 수록되어 있는 ‘お/おん-, ご-, -がつ(月), -くん(君), -げつ, -さい<歳>, -さつ(冊), -さま/さん, -じ(時), -じん(人), -たち, -ど(度), -にち, -ふん/ぶん(分), -ほん/ほん/ほん, -や(屋)’와 같은 접사류(接辭類)와 조수사(助數詞)는 단독으로는 품사를 설정할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품사별 구성은 상기와 같은 표제어는 제외하고 생각하기로 한다. 다시 말해 자립어만을 대상으로 품사별 구성과 어종별 구성을 보고자 하는 것인데, 기본어휘와 비교하게 될 실제 어휘조사 자료에도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

상기와 같은 표제어를 제외하고 남은 자립어 수는 764語이다. 그 중 다

음의 9語는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항목으로서 [] 안에 넣어 제시하고 있다.

[あの] [あまり] [あれ] [いま] [ちょっと] [つぎ] [はんたい] [また] [みな/みんな]

‘つぎ, はんたい’가 어떻게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외의 7語에 대해서는 ‘あの(연체사·감동사), あまり(명사·부사),あれ(대명사·감동사), いま(명사·부사), ちゃんと(부사·감동사), また(부사·접속사), みな/みんな(부사·대명사)’와 같이 양쪽 품사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단, 이 기준은 품사별 구성에만 적용됨을 밝혀 둔다.

이상과 같이 하여 총 771語에 대한 기본어휘의 품사별 구성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3> 기본어휘의 품사별 구성

명사 ⁵⁾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		부사		연체사		접속사		감동사		합계	
단어 수	비율	단어 수	비율	단어 수	비율	단어 수	비율	단어 수	비율	단어 수	비율	단어 수	비율	단어 수	비율	단어 수	비율
399	51.8	196	25.4	78	10.1	26	3.4	50	6.5	9	1.2	6	0.8	7	0.9	771	100

<표3>의 기본어휘의 품사별 구성이 얼마만큼 타당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제 어휘조사 자료인 『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 어휘⁶⁾의 품사별 구성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 어휘는 문절(文節)을 기준으로 조사된 것으로, 먼저 문절로 나눈 다음 그것을 다시 자립어와 부속어로 나누어 그 각각을 한 단위로 삼고 있으며, 모든 요소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조동사는 물론 고유명사와 기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기본어휘와 맞출 필요가 있으므로 자립어만을 대상으로 한다.

자립어만 추출했을 경우 『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 어휘는 이어(異語) 3,646語,

5) 명사에는 대명사도 포함되어 있다.

6) 1981년 講談社에서 출간된 『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은 2000년 김난주에 의해 『창가의 토토』라는 제목으로 한국어로 번역, 출판되기도 한 작품으로, 저자 구로야나기 테즈코(黒柳徹子)의 자전적 소설이다. 이 소설은 도모에학원이라는 초등학교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그리고 있는데, 61개의 짧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적 쉬운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어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보아 기본도가 높은 일본어의 경향을 보기에 적합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연어(延語) 26,427語이다. 이것을 빈도가 높은 단어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최고빈도어(最高頻度語)부터 빈도6까지가 729語, 빈도5까지가 855語가 된다. 855語 쪽이 기본어휘의 단어 수에 더 가까우므로 빈도5부터 시작하여 빈도수를 하나씩 낮춰 가면서 품사별 구성을 보기로 한다. 그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4> 『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 어휘의 품사별 구성

범위	명사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	부사	연체사	접속사	감탄사	합계
빈도5 까지	416 (48.7)	232 (27.1)	51 (6.0)	32 (3.7)	83 (9.7)	11 (1.3)	19 (2.2)	11 (1.3)	855 (100)
빈도4 까지	504 (48.6)	279 (26.9)	61 (5.9)	40 (3.9)	103 (9.9)	12 (1.2)	21 (2.0)	16 (1.5)	1036 (100)
빈도3 까지	689 (51.0)	365 (27.0)	72 (5.3)	47 (3.5)	123 (9.1)	12 (0.9)	23 (1.7)	20 (1.5)	1351 (100)
빈도2 까지	1004 (52.5)	514 (26.9)	83 (4.3)	83 (4.3)	154 (8.1)	12 (0.6)	27 (1.4)	35 (1.8)	1912 (100)
빈도1 까지	1998 (54.8)	959 (26.3)	133 (3.6)	167 (4.6)	283 (7.8)	15 (0.4)	31 (0.9)	60 (1.6)	3646 (100)

*() 안은 비율을 나타냄.

<표4>를 보면 빈도에 관계없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형용동사의 순으로 비율이 낮아지고, 연체사, 접속사, 감동사의 비율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표3>의 기본어휘의 품사별 구성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을 일본어의 품사별 구성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빈도5까지의 고빈도어군(高頻度語群)과 기본어휘를 비교했을 경우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에서 비교적 많은 단어 수(數)의 차이가 보인다. 단어 수(數)가 동사, 부사, 접속사에서는 『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 어휘 쪽이 많으나, 형용사에서는 기본어휘 쪽이 많다.

먼저 동사에서는 120語가 공통으로 들어 있는데, 범위를 빈도1까지 확대시키면 공통도는 훨씬 높아지게 된다. 그래도 아래에 보이는 25語는 기본어휘에만 들어 있는 동사들이다.

あく(開) あける(明) うつる(移) おくる<贈> おっしゃる くもる ける こむ しめる
<締> たす たずねる つく(点) つく(就) つとめる ぬう のむ はかる はく<掃>

はらう はれる(晴) ひる(昼) ほめる まにあう ゆるす わる<割>

상기 동사 중 ‘たす, たずねる, はく<掃>’ 이외는 『日本語教育基本語彙七種比較対照表』에서 4종 이상의 자료에 걸쳐 나타나는 동사이나 ‘あける(明), おくる<贈>, しめる<締>, ぬう, わる<割>’ 등과 같은 동사는 그다지 효용성이 높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동사가 선정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제7차 교육과정 기본어휘의 선정 방법과 사용 자료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는 없지만, 제6차 교육과정 기본어휘 선정 시 자료로서 이용된 『日本語教育基本語彙七種比較対照表』를 참고자료로 삼았을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あける(明・開), おくる(送・贈), しめる(締・閉)’ 등과 같이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를 하나의 표제어로 처리하고 있으나 기본도의 측면에서 각각의 단어가 동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상기와 같은 효용성이 낮은 동사가 선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 어휘 쪽에만 들어 있는 동사를 보면, 어휘조사를 문절(文節)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복합동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要る, 怒る, 踊る, 驚く, 決まる, 信じる, 止まる, 乗せる, 見付ける’ 등은 빈도10 이상으로 기본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동사가 기본어휘로 선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형용사와 부사에서 ‘ありがたい, 悲しい, すごい, 苦(にが)い’와 ‘一番, かなり, きっと, こう, どうして, 時々, 勿論’ 등은 『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에서 10회 이상 출현하고 있는데, 기본어휘에는 선정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접속사를 보면, 기본어휘에는 ‘けれども, しかし, そうして/そして, それから, それでは, また’ 6語의 접속사가 선정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기본어휘로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3.3 기본어휘의 어종별 구성

어종(語種)이란 단어의 출신이나 태생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유어⁷⁾,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로 분류한다. 기본어휘의 각 단어가 각각 어느 어종에 속하는가는 『新潮国語辞典(第二版)』(新潮社版, 1995)에 의거하여 판단했다⁸⁾.

7) 일본어에서는 고유어에 대해 「和語」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본고에서는 모든 언어에 적용이 되는 「고유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기본어휘와 『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 어휘의 어종별 구성을 보이면 각각 다음 <표5>, <표6>과 같다.

<표5> 기본어휘의 어종별 구성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합계	
단어수	비율	단어수	비율	단어수	비율	단어수	비율	단어수	비율
546	71.5	171	22.4	38	5.0	9	1.2	764	100

<표6> 『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 어휘의 어종별 구성

범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합계
빈도5까지	611(71.5)	150(17.5)	33(3.9)	61(7.1)	855(100)
빈도4까지	724(69.9)	189(18.2)	38(3.7)	85(8.2)	1036(100)
빈도3까지	913(67.6)	263(19.5)	48(3.6)	127(9.4)	1351(100)
빈도2까지	1268(66.3)	381(19.9)	70(3.7)	193(10.1)	1912(100)
빈도1까지	2201(60.4)	813(22.3)	145(4.0)	487(13.4)	3646(100)

*() 안은 비율을 나타냄.

위의 표를 보면, 고유어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한자어라는 것은 공통되나, 외래어와 혼종어에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 어휘는 문절(文節)을 기준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安心する, お弁当, 充分だ, 親切だ, 心配する, 説明する, 先生たち, 必要だ, 勉強する, 有名だ’ 등과 같이 한자어에 접사(接辭)나 ‘する, だ’가 결합된 복합어가 많이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한자어에서는 단어 수(數)가 더 적은 기본어휘 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문제되는 것만 지적하면 ‘えいせいほうそう, けいたい でんわ, じどいはんばい’와 같은 단어는 효용성의 문제도 있지만, 이와 같이 긴 복합어를 기본어휘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かしゅ, ゆしゅつ, ゆにゅう’도 기본어휘에만 보이는 한자어인데, 그 중 ‘かしゅ’는 『日本語教育基本語彙七種比較対照表』에서 1종류의 자료에만 나타나는 단어로 기본도가 그다지 높지 않으며, ‘ゆしゅつ, ゆにゅう’는 5종류의 자료에 걸쳐 나타나고 있지만 <표1>의 교과서 중 1종류의 교과서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효용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8) 이 사전에서는 표제어를 「和語」는 히라가나(平仮名)로, 한자어와 외래어는 가타카나(片仮名)로 표기하고 있다.

4. 개선방안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 교육용 기본어휘가 총 12종의 교과서 중 일본어 I 과 II가 모두 출판되어 있는 6종의 교과서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조사를 통해 기본어휘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기본어휘 중에는 6종의 교과서에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단어와 시대에 맞지 않는 단어가 선정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의미의 결락(缺落)이 보인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기본어휘와 실제 어휘조사 자료인 『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 어휘의 품사별, 어종별 구성의 비교를 통해 기본어휘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단어로서 적합하지 않은 단어가 다수 선정되어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고등학교 일본어 교육용 기본어휘의 선정은, 주로 일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 교육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일본에서 선정 혹은 편집된 기존의 어휘자료에만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용 기본어휘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들 자료는 대부분 일본 현지에서 생활하는 유학생을 염두에 두고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용 기본어휘로서 적합하지 않은 단어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고등학교 일본어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목적에 맞게 잘 계획되고 설계된 어휘조사를 직접 행하여 기본어휘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기본어휘를 선정함에 있어서 단어의 사용빈도나 분포 등을 기초로 하는 통계적(객관적) 방법만 따르게 되면 앞서 말한 의미의 결락(缺落)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田中章夫(1978)에 따르면, 기본어휘의 선정방법에는 통계적(객관적) 방법 외에도 전문가의 판단이나 경험에 의해 주관적으로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양자를 조합해서 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주관적 방법을 따르더라도 객관성의 확보가 문제가 되므로, 먼저 객관적 방법에 의해 기본어휘를 선정한 다음 주관적 방법으로 결점을 보완하게 되면 완성도 높은 기본어휘가 선정될 것이다.

또한 품사별 구성과 어종별 구성은 언어별로 일정한 규칙성이 보이므로, 가급적 많은 어휘자료를 이용하여 일본어에 있어서 기본도가 높은 단어군

(單語群)의 품사별, 어종별 구성의 경향성을 밝혀내고, 그것을 기본어휘 선정 시에도 반영시킴으로써 매우 효용성이 높은 기본어휘가 선정될 것이다.

끝으로 제7차 교육과정 기본어휘에는 조사, 조동사, 인사표현, 접사(接辭), 조수사(助數詞) 등도 선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일본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기본어휘의 표제어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항목을 달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용성이 높은 단어를 더 많이 기본어휘로 선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며, 교과서에서도 단어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어휘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 일본어 교육용 기본어휘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 원인을 크게 기본어휘 선정 방법의 문제와 선정에 사용된 자료의 문제 두 가지로 보고 있다. 그 중 선정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자료에 문제가 있어 선정자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자료 자체를 교체해야 하므로 어떤 자료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향후 고등학교 일본어 교육용 기본어휘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어휘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교육목적에 부합되도록 잘 설계된 실제 어휘조사 자료를 사용할 것과 객관성과 주관성이 잘 조화된 선정 방법을 채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어휘조사 자료는 가능한 한 대상을 달리하는 여러 종류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도 安秉坤(1986), 徐益煥(1989), 尹岡丘·禹有貞(2000) 등의 선행 연구에서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 어휘와 교육용 기본어휘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 교육과정별 기본어휘의 비교나 기본어휘의 교과서 반영 비율 등의 조사를 통한 기본어휘의 타당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본고에서 지적한 상기와 같은 문제의 본질 파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품사별, 어종별 구성도 기본어휘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향후 새로운 교육용 기본어휘의 선정에 본고의 제안이 반영되어 효율성이 높은 기본어휘가 선정될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 고등학교 일본어 교육에 일조(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参考文献】

- 교육부(1997) 『외국어과 교육 과정(Ⅱ)』
- 徐益煥(1989) 「高等學校 日本語 檢認定8種教科書の 語彙分析」, 『日語教育』 5, 한국일본어교육학회
- 安秉坤(1986) 「現行 高等學校 日本語教科書 語彙分析」 『日語教育』 2, 한국일본어교육학회
- 尹岡丘·禹有貞(2000) 「高等学校 教育課程 日本語教科의 基本語彙 分析-基本語彙의 妥当性を 중심으로-」, 『日語教育』 17, 한국일본어교육학회
- 李庸伯(2006) 「次回の日本語教育課程の基本語彙について」, 『國際シンポジウム比較語彙研究 X』, 語彙研究会
- 国立国語研究所(1982) 『日本語教育基本語彙七種比較対照表』
- 田中章夫(1978) 『国語語彙論』, 明治書院, pp.53-80
- 田中章夫(2000) 『近代日本語の語彙と語法』, 東京堂出版, pp.53-57
- 林大監修·宮島達夫他編(1982) 『図説日本語』, 角川書店, pp.60-80

要 旨

第7次教育課程の高等学校日本語教育用基本語彙が教科書にどれぐらい反映されているかという調査を通して、教育用基本語彙にはどのような問題点があるか探ってみた。その結果、教育用基本語彙の中には、全部で12種の教科書のうちⅠとⅡがすべて出版されている6種の教科書に1回も使われていない語と時代に合わない語が選定されていること、それから、意味の欠落が見えることを問題として指摘した。

また、教育用基本語彙と実際の語彙調査資料である『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語彙との品詞別・語種別構成の比較によって、教育用基本語彙には高等学校教育課程の語として適切でない語が多数選定されている、という問題点も指摘した。

これまでに数回にわたって行なわれた教育用基本語彙の選定は、主に日本在住の外国人を対象とする日本語教育に主眼を置いて選定、あるいは、編集された既存の語彙資料にのみ依存してきたのが事実であるが、これらの資料には韓国における高等学校の教育用基本語彙として適していない語も多く含まれている。

そのため、上記のような問題が惹き起こされたと考えられるが、そのような問題が起き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は、韓国における高等学校日本語教育という特殊性を考慮し、教育目的に見合うようによく計画され、設計された語彙調査を実際に行なって、それを基礎資料として教育用基本語彙を選定するのが望ましい。選定方法としては、先ず語の使用頻度や分布などの指標を用いた客観的方法によって基本度の高い語を選定し、その後、主観的方法によって欠点を補えば、効率のよい基本語彙が選定できると思われる。

なお、品詞別構成と語種別構成は言語別に一定の規則性を持つことから、出来るだけ多くの語彙資料を用いて、日本語における基本度の高い単語群の品詞別・語種別構成の傾向性を明らかにし、それを基本語彙の選定の時に反映させれば、さらに効率のよい基本語彙の選定に繋がると思われる。

今後、新たな教育用基本語彙を選定する際、本稿の指摘および提案が反映され、効率の高い基本語彙が選定されることを期待し、ひいては、高等学校日本語教育に一助できることを願う。

キーワード：教育課程、教育用基本語彙、品詞別構成、語種別構成、頻度、効用性

투 고 : 2007. 2. 28
1차 심사 : 2007. 3. 10
2차 심사 : 2007. 3. 31

住 所 : (306-791)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 한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42-629-7332
e-mail : mcshin68@hanmail.net